

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

안남기 | 종합기획분석실장(3705-6232)

미국 10월 PCE 반등 가능성. 3Q GDP 수정치와 블랙프라이데이 소비도 관심

- 11.28일 미국 10월 PCE 가격지수 발표. 근원PCE 지수는 지난 8월 전년동월대비 2.7%로 소폭 반등후 9월 동일한 수치를 보였으나 금번 2.8% 내외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
 - 헤드라인지수는 7월 전년동월대비 2.5%에서 8월 2.2%, 9월 2.1%로 둔화세를 재개했으나 금번 2.3% 내외로 반등 예상. 전월대비로는 9월 0.2%와 비슷한 수준 예상
- 11.27일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 발표. 지난달 속보치는 전기대비연율 2.8%로 2분기 3.0%에서 소폭 둔화된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금번 수정치도 비슷한 수준 예상
- 추수감사절(11.28일) 다음날인 11.29일은 블랙프라이데이로 연말 미국 세일시즌이 시작. 3분기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(2.8%) 이후 4분기 성장 강도를 가늠할 가계소비 향방에 관심
 - 전미소매협회(NRF)는 내주 사이버먼데이까지 역대최대인 1.83억명이 구매할 의향이 있으며, 11~12월 연말 소비액이 전년동기대비 2.5~3.5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

11월 FOMC 의사록 공개. 한국 및 뉴질랜드 금리 결정도 주목

- 연준은 11.26일 FOMC 의사록을 공개. 지난 11.6~7일 25bp 금리인하 결정시 △연내 및 내년 금리 향방 △경제 및 고용 전망 △물가 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를 가늠
 - 특히 성명서에서의 “노동시장 완화” 수정(종전 둔화), “인플레이션 2%로 접근 확신” 삭제 배경에 관심
- 한국은행은 11.28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개최. 10월에 이은 연속 인하 부담, 가계부채, 환율 등으로 동결(현 3.25%) 의견이 우세하나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 인하 필요 의견도 존재. 또한 금번에 내놓을 경제전망(8월 전망시 금년 성장률 2.4%, 내년 2.1%)의 하향조정 여부도 관심
-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11.27일 통화정책회의 개최. 지난 8월 정책금리를 25bp, 9월 50bp 인하 이후 금번에도 경기진작을 위해 추가로 50bp 인하 예상(현 정책금리 4.75%)



유로존 및 일본 도쿄지역 11월 CPI 발표. 최근 둔화세에서 반등 가능성

- 11.29일 유로존 11월 CPI(HICP) 잠정치 발표 9월 전년 동월대비 1.7%로 둔화세를 지속했으나 10월 2.0%로 반등한 후 금번에도 2.4% 내외로 추가 상승 예상
- 11.29일 일본 11월 도쿄지역 CPI 발표. 지난 10월 전년 동월대비 1.8%로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인 이후 금번 향방에 관심.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 10월 1.8%에서 3개월만에 반등 가능성



캐나다 및 인도 3분기 GDP 발표

- 11.29일 캐나다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. 지난 2분기 전기대비연율 2.1%로 3개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번 0.9%대로 비교적 큰 폭 둔화 예상
- 11.29일 인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. 작년 4분기 전년 동기대비 8.4%를 고점으로 금년 2분기 6.7%까지 둔화 추세를 이어온 가운데 금번에도 6.5% 내외로 추가 둔화 가능성



OPEC+ 증산 계획 연기 여부에 촉각. 금주 레바논 전쟁 휴전협상 향방도 관심

- 12.1일 OPEC+ 회의 개최. 10월 계획한 자발적감산(일 220만 배럴) 완화(증산)를 내년 1월로 두 차례 연기한 후 금번에도 추가 연기 전망이 우세. 다만 일부는 시행 가능성 제기
- 미국이 제안했던 레바논 헤즈볼라-이스라엘간 휴전안 협상이 지난주 일부 진전을 보인 가운데 금주 타결 여부에 관심. ICC 체포영장 발급 등 국제사회 압박 속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도 주목



러-우 전쟁 사태 전개에 주목. G7 외교장관회의도 개최

- 우크라이나가 11.19일과 20일 러시아에 미국제, 영불제 장거리미사일로 공격하고, 21일 러시아가 중거리미사일로 반격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금주 전황 변화에 촉각
- 11.25~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G7 외교장관회의 개최. 최근 러-우 전쟁 관련 우크라이나 지지 및 러시아 대응, 중동사태, 북한-러시아 군사협력 등을 논의.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 예정

